

# 시즌 출발 '배격'... 고개 숙인 사자 토종 에이스

## 타격자세도 마음가짐도 달라졌다

개막 연속경기 안타 기록 박성한  
중심축 교정하고 적극적인 배팅



프로야구 SSG 랜더스 박성한이 21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개막 19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44년 만에 새 기록이 탄생했다. SSG 랜더스의 리드오피 박성한(28)이 프로 야구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박성한은 2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원정 경기에서 1번 유격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3안타 2타점 1득점 1볼넷을 기록했다. SSG는 박성한의 활약을 앞세워 삼성을 5-4로 제압했다.

박성한은 이날 1회 초 첫 타석에서 삼성 선발 최원태 상대로 초구 시속 144km 선발 투수를 받아 첫 우전 안타를 만들어냈다. 올 시즌 개막전부터 19경기 연속 안타를 치며 프로야구 역대 개막전 이후 연속 경기 안타 기록을 새로 썼다. 종전 기록은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롯데 자이언츠의 김용욱이 세운 18경기였다. 아울러 2024-2025년 세웠던 개인 연속 경기 안타 기록(18경기)도 갈아치웠다.

박성한은 올 시즌 초반 절정의 타격감을 발휘했다. 22일 오전 기준 19경기에서 타율 0.486(70타수 34안타) 1홈런 19타점 16득점 3도루 OPS(출루율+장타율) 1.270으로 타율, 안타, 출루율(0.584) 등 3개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장타율(0.686)은 2위, 타점은 공동 3위다. 이전의 여가 없는 현시점 프로야구 최고의 타자다.

2017년 데뷔한 박성한은 2021년과 2024년 2차례 규정타석 3할 타율을 기록하며 타격에서 재능을 보였다. 다만 올해처럼 초반 페이스가 좋았던 적은 처음이다. 더군다나 그는 지난해 11월 체코와 평가전에서 몸에 맞는 볼에 갈비뼈가 부러져 시즌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스프링캠프는 물론 시범경기에서도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아 애타 먹었다.

악간의 변화로 해법을 찾았다. 임훈

SSG 타격 코치는 "박성한은 미세하게 중심축이 무너져 있었는데, 바이오메카닉스 데이터를 통한 교차 분석으로 타격 자세를 수정하자 눈에 띄게 살아났다"고 설명했다.

달리진 마음가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올 시즌 현장에서 만난 이승우 SSG 감독은 "박성한은 늘 변함없이 준비를 잘했다"면서 "타석에서 침착한 모습을 보여서 '유리한 카운트를 적극적으로 휘두라'고 주문한다. 본인도 그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박성한의 타석 당 투구수는 지난해 4.53개였으나, 올해는 4.35개까지 줄었다. 복잡한 생각을 버린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2021년부터 SSG 주전 유격수로 올라선 박성한은 수년간 꾸준한 활약에도 골든글러브와 인연을 맺지 못했다. 오지환(LG 트윈스), 박찬호(두산 베어스), 김주원(NC 다이노스) 등 리그 경쟁한 유격수들과 경쟁에서 한 칸 차이로 밀렸다. 2인자였던 그는 올 시즌 커리어하이와 함께 생애 첫 골든글러브를 손에 넣었다.

손아지는 전사에도 박성한은 몸을 낮췄다. 그는 "지난해와 달라진 건 없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많이 많이 따를 것 같다"며 목표는 '팀의 우승'이라고 강조했다. 신화재 기자

부상에 WBC 낙마한 삼성 원태인  
12일 NC전 엔트리 지각 합류후  
LG전 연속 실점 뒤 부적절 표현  
"나와선 안 될 행동... 정말 죄송"



"어떤 상황에서 나와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 정말 죄송하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간판 투수 원태인(26)이 최근 불거진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원태인은 2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홈 경기를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지난 19일 경기장에서 보인 행동은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었다. 많은 분들께 실례를 끼쳤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원태인은 당시 LG 트윈스와 홈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경기 중 부적절한 행동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팀이 0-3으로 뒤진 4회 초 1사 2루에서 이영민을 2루 땅볼로 유도했다. 그런데 2루수 류지혁이 홈 내 1루로 던져 추가 실점이 나왔다. 이를 본 원태인은 류지혁을 향해 어떤 말을 내뱉었고, 류지혁의 군은 표정이 함께 잡혀 그대로 중계방송에 송출됐다. 이 장면을 본 팬들은 원태인이 6살 많은 팀 선배에게 욕설을 냈다고 하며 무례하다고 비난했다.

이후 팀 선배인 포수 강민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커졌다. 강민호는 원태인의 발언이 류지혁을 향한 욕설은 아니라며 "상상에 버릇없는 후배는 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원태인이 21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지난 19일 LG 트윈스전에서의 발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죄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명도 없다"고 응수했지만, 대신 3루 베이스에서 주루를 지시한 정수성 LG 작전코치를 보고 하소연한 것이라 말해 파장이 일었다. 타 구단의 22살 차이인 대선배를 향해 욕설을 냈을 게 더 문제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결국 원태인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많은 분들이 그날 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다"며 "부상 복귀 후 너무너무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런데 그날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아 예민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이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야구장에서 어 떤 상황이라도 나와선 안 됐다. 며칠 동안 수없이 회회하고 반성했다.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도록 성숙한 선수이자 사람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프로에 데뷔한 원태인은 지난 해까지 통산 7시즌 동안 187경기 1052 1/3이닝에 등판해 68승 50패 2올드 팬권 자책점 3.77을 기록했다. 수년간 꾸준한 활약을 펼치며 리그 정상급 투수 선발 투수로 입지를 굳혔고, 올 시즌 이후 자유계약선수(FAS)를 앞둔 대형 계약을 맺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 올 KS 우승팀 어디?

프로토 기록식 31회차 발매 시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프로토의 수탁사업자 한국스포츠저자회가 프로토 기록식 31회차 '2026 KBO 한국시리즈 최정전 승리팀(우승팀) 맞이하기' 상품의 발매를 개시했다.

2026 KBO 한국시리즈 최정전 승리팀(우승팀) 맞이하기 상품은 이번 시즌 국내 프로야구를 대상으로 한 게임이다. 21일 오후 2시부터 발매가 시작됐으며 오는 7월 9일 오후 11시까지 전국 판매점 및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배트맨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번 게임은 KBO리그 10개 구단 가운데 한국시리즈 최정전 승리팀을 예상해 선택하는 방식이다. 각 팀의 순서는 2025 시즌 최종 순위를 기준으로 구성됐으며, 발매 기간 중 각 팀의 배당률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 현재 배당률을 보면 지난해 우승을 차지한 1번 LG 트윈스가 3.00으로 가장 낮은 배당률이었으며, 삼성 라이온즈(4번, 4.50), KT 위즈(6번, 6.00), 한화 이글스(2번, 7.00)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반면, 두산 베어스(9번, 20.00), 롯데 자이언츠(7번, 40.00), 키움 히어로즈(10번, 100.00) 등은 비교적 높은 배당률이 책정됐다.

실제 올 시즌 초반 KT와 LG, 삼성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KT는 14승 6패(승률 0.700)로 1위에 올라 있으며, LG(13승 6패 0.684), 삼성(12승 1무 6패 0.667) 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최근 10경기에서 LG가 8승 2패, 삼성, KIA, KT가 나란히 7승 3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는 점도 눈에 띈다.

적중 시 환급금은 구매 시점의 배당률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동일한 팀을 선택하더라도 구매 시기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 추후 혼동이 없도록 구매할 투표권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한국스포츠저자회 관계자는 "이번 프로토 기록식 31회차 한국시리즈 최정전 승리팀(우승팀) 맞이하기 상품은 프로야구를 긴 호흡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며 "국내 야구팬들이 단순한 배팅을 넘어 한 시즌 동안 야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류정호 기자

## 오늘의 경기

- 농구** • LG전자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1차전 • LG-소노(9사·창원체육관)
- 골프** • 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서원밸리 컨트리클럽)
- 펜싱** • 회장배 전국남녀농별선수권대회(9사·해남 우슬체육관 등)
- 사격** • 2026 아시안스코아 아시아게임 국가대표 선발전(9사·창원국제사격장)
- 하키** • 제45회 KBS 협회하키 전국남녀대회(10사·동해 센터아이스하키경기장)
- 씨름** • 제72회 중흥인삼배 전국장사대회(10사·중흥종합스포츠센터)



이정후 '메티 히트' 웃고 김해성 '승구 실책' 울고... 맞대결 회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SF)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22일(한국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코리올 파크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와 경기에 타점 4타점을 때리고 있다. 이정후는 이날 홈 경기에서 6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해 3타수 2안타를 치고 타점 1개를 수확했다. 시즌 7번째 멀티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친 이정후는 시즌 타율은 0.259로 상승했다. 한편 다저스의 김해성도 이날 경기에서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1할말 출전만 승구 실책을 저질러 1-3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다. 김해성은 7회초 우타자 대타 미겔 로하스로 교체돼 1타수 1안타 타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AFP·연합뉴스

## '농익은' 서울... '설익은' 전북

시즌 초반 조직력 완성도서 차이  
단독 선두 질주-3경기 무승 갈라



프로축구 K리그1(1부) 초반 판도가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다. 다비엔트 챔피언스 전북 현대가 주

축하는 사이, 김기동 감독 체제 3년차에 접어들어 FC서울은 선두로 치고 나가며 우승 경쟁에 중심에 섰다. 서울 도약, 전북 제동을 가른 차이는 결국 팀 완성도와 공수 밸런스, 그리고 핵심 자원의 실질적 영향력에 있다고 분석한다.

서울은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 K리그1 2026 9라운드 홈 경기에서 부산FC를 3-0으로 완파했다. 직전 대전 하나 시티즌전 0-1 패배 뒤 골파로 반동하며 1위(승점 22)를 지켰다. 9경기서 19득점 5실점을 기록하며 공수 양면에서 안정감이 뚜렷하다. 단순히 눈치는 팀이 아니라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잘 잡힌 팀이라는 뜻이다.

김기동 서울 감독이 공들여온 축구도 이제는 경기력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은 올 시즌 빌드업 템포와 전방 압

박, 공수 전환의 짜임새가 한층 또렷해졌다. 김기동 감독은 부천전 뒤 "감독을 주는 축구였다. 선수들이 진지하고 열심하게 임했다"고 평가했다. 자신이 원한 축구가 구현되고 있다는 확신이 묻어나는 말이었다. 그 중심에는 바베츠가 있다. 김기동 감독은 클리발라, 문선민, 정승원 등 공격 자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팀 전체 운영을 보면 바베츠의 비중이 대단히 크다"고 꼽았다. 특정 장면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들과 달리, 경기의 리듬과 연결감을 만드는 축은 바베츠라는 의미다.

현장 평가도 비슷하다. K리그에 정통한 관계자는 "서울은 지난 시즌보다 빌드업 템포와 압박 조직이 분명해졌다. 김기동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구현되는 인상"이라며 "외국인 선수들의 능력도 좋아졌다. 특히 바베츠, 클리발라의 영향력이 크다"고 말했다. 김기동 감독과 K리그에 정통한 관계자가 나란히 바베츠를 언급한 것은 서울 상층부의 분별을 보여준다. 화려한 마무리로 끝낸 정예파와 연결 고리가 먼저 살아났다는 뜻이다.

구수원 영입 효과도 빼놓기 어렵다. 서울은 후반 안정감을 바탕으로 공격

전개까지 매끄럽게 이어가고 있다. 결국 서울의 강점은 특정 선수 한두 명의 활약이 아니라, 핵심 자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력에 있다.

반면 전북은 아직 다비엔트 챔피언스 무개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1일 열린 유나이티드 1-2로 역전패하며 최근 3경기 무승(1무 2패)에 빠졌다. 4위(승점 12)에 머문 전북은 수비 조직이 여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공격의 날카로움과 경기 지배력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관계자 역시 전북에 대해 "좋은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기존 코어 멤버와의 공백을 아직 다 메우지 못한 인상"이라며 "이동준은 살아났지만 전체적인 공격 파괴력은 지난 시즌만 못하다"고 진단했다. 서울이 이미 팀의 틀을 완성했지만, 전북은 여전히 조합을 다듬는 과정에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초반 판도를 가른 차이는 분명하다. 서울은 김기동 감독의 축구가 팀 안의 자리 잡았고, 바베츠를 축으로 한 조직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반면 전북은 선수 면면의 무개함과 별개로 팀 전체의 유기성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 신화재·류정호 기자

## U-16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김태엽

2016년부터 전임 지도자 활동

공적 중인 대한민국 16세 이하(U-16) 남자 대표팀 사령탑에 김태엽(54) 대한 축구협회의 전임 지도자가 선임됐다.

축구협회는 기술발전위원회와 주관으로 감독 선임에 진행했는데, 연령별 대표팀의 유기적인 연계와 선수 육성의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후보로는 각급 유소년 대표팀과 골든에이지 선수 지도를 경험한 축구협회의 전임 지도자로 추천됐다. 이 중에서 심층 면접, 프리젠테이션 등으로 책임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김태엽 감독이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1순위로 추천됐다. 축구협회는 이사회를 소집했다.

김태엽 감독은 전남 드래곤즈, 독일 하우젠 등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이후 유소년 육성과 지도에 매진한 유소년 축구 전문 지도자다. 독일에서 유소년팀 코치를 지냈고 귀국 후에는 전남 유소년년팀 광양제철초, 광양제철중 감독을 역임했다. 그의 지도 아래 한화, 장원호(이상 수원FC), 아유원(강원FC) 등 여러 선수가 배출됐다.

2016년부터는 축구협회의 전임 지도자로 활동했다. 지난해에는 17세 이하(U-17) 대표팀 코치로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32강 진출에 기여했다.

김태엽 감독 체제로 정비한 U-16 대표팀은 내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김태엽 감독

열릴 2027 아시아 축구 연맹(AFC) U-17 아시안컵과 11월 카타르에서 열릴 2027 U-17 월드컵을 대비한다. 한편 AFC는 오는 5월 9일 오전 3시(한국 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라야드에서 무라타시 세계 문화유산 지구 내 행사장에서 열린다.

김우정 심판은 2018년부터 FIFA 국제심판으로 활동 중이다. 올림픽, 여자 월드컵 등 각종 국제대회의 주심으로서 나서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심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축구협회를 통해 '아시안컵'이라는 큰 대회의 조 주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깝잖은 기회를 제공한 대한축구협회와 AFC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심판으로서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다. 앞으로는 계속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성진 기자

Smart Economy

hansbiz.co.kr

대표번호 02)725-6007 E-mail. sporbiz@sporbiz.co.kr

기사제보/구독/광고 02)725-7563 FAX. 02)725-3939

회장 정순표 발행·편집인/대표 최기억 편집장 이철규 총괄부사장 김창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27 7서머셋빌딩 4층. 구독료 1부 700원 한달 13,0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서울 가 50072